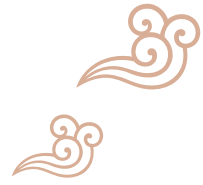


## 창의력 발휘를 통한 광고발전 기해바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과 광고인 모두에게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광고계는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광고의 호기를 맞았지만, 세월호 사태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당초 기대와는 달리 광고시장이 역성장하는 힘든 한해를 보였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국내 내수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비상 경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시장 또한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2% 초반의 낮은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광고시장이 선순환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광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방송광고총량제, 그리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선 등은 광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고효과에 기초한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우리 국민의 매체이용실태조사'와 '반론보도닷컴' 등을 통해 신뢰와 영향력에 입각한 합리적인 광고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광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방송·신문 등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과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통해 자유 시장경제 이념을 고양하고 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 매체사와의 소통을 통해 상호간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활동이 왕성해야 생산과 소비는 물론 매체 광고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광고시장의 선순환 과정은 우리 경제 성장을 더욱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변화 물결 속에서 매체 및 광고 발전을 위해서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가 힘을 모아 창의력을 발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평화와 인내의 상징인 양의 해에 회원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김정기